

일만이천이 준비한 축제 한마당

기획단계부터 일반학생 참여 ... 대동제 오는 15일 개막

2002년 목석대동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나를 미치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기치로 하는 이번 대동제는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에 가질 수 있는 불만을 해소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세부적인 주제는 △불교병원 조기개원 반대 △F-15 관련 미국반대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 문제점 지적 등이다.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가 진행하는 주요 행사로는 △15일=개막선언 퍼레이드, 동아 학부학생 한마당, 맑은세상 퀴즈대회, 학자주점, 심야영화제 △16일=통일

마당극 공연, 락 페스티벌, 동아리·소모임 상상공연 △17일=폐막식, 학우가요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맑은세상 퀴즈대회는 깨끗한 동학을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으로 △분리수거 선전 △휴대용 재떨이 보급 등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총학생회는 스승의 날(15일)과 상년의 날(20일)을 맞아 △교수와 함께하는 '동아 학부학생 한마당' △체육대회 참가자 중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학생에게 특별한 상선식을 마련해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동제는 총학생회에서 단독으로 준비했던 예년과 달리 '대동제 기획단'을 모집해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관련해 강인욱(영문4) 기획단장은 "학생회 사업 경험에 없는 학생들이 대동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임형준·중문4)는 대동제 기간 동안 전통문화 알리기의 일환으로 △차·떡 나누주기 △민박 판매를 진행하고, △15일=한겨레신문 눈사람

원 손쉬운 초청 언론개척 강연회 △16일=경락마사지 강연회를 개최한다. 또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일간지 시사만평·만화 거리전'을 해학관 앞에서 연다.

이번 대동제와 관련해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총장실 점거 농성 등 학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열리는 대동제인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관련기사 2면(보도) 대학부 dmz@dongguk.edu



아슬아슬 ... 이마추어농구회 주최 백상농구대회가 지난 6일부터 만해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2개팀이 참가했으며, 오늘부터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벌이는 본선 토너먼트가 이어진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중국어·일본어 특강 대부분 폐강

정규수업과 차별화 필요

전문강사·수준별 강좌 등 방안 모색돼야

중국어와 일본어가 최근 영어와 더불어 필수 언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어영문학)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중국어 일본어 특강을 개설하고 있지만 매번 정원이미달로 폐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국어 일본어 특강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정규수업과 강의내용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토익강좌의 경우 초·중·고급으로 수준별 강의를 개설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 외부 업체와 협약을 맺어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 일본어 특강의 경우 개설된 강좌종류가 한정돼 있어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일본어는 초급수준 한 강좌, 중국어는 초·중급 회화와 HSK(한어수평고사) 강좌만 개설돼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어학 전용 강의의 실익이 부족해 강좌 증설이 현

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본어 특강의 경우 본교 정규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국어 일본어 강좌가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업체가 직접 홍보에 나서지는 토익특강에 비해 중국어 일본어 강좌는 홍보인력이 부족하고, 접수장소도 언어연구교육원으로 한정돼있다. 토익특강의 경우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중앙도서관 앞에서도 접수를 받아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중국어 일본어 특강에 대한 학생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해 조의연 언어연구교육원장은 "학생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연구교육원은 앞으로 어학특강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강좌의 종류·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오는 19일 정각원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맞이 봉축 법요식이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정각원에서 열린다.

이번 법요식의 법사는 이법산 정각원장이고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등이 참석한다.

구성애 초청 성교육 특강

성의 개념 및 성폭력 예방

아우성 센터 소장 구성애씨 초청 성교육 특강이 오늘(13일) 오후 2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성의 개념 및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방청객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공금회령 직원 실형 선고

지난 9일 1차공판에서

법원에 환급금 회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전 법인사무처 경리담당직원 김모(37) 씨가 1차 공판에서 실형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7년을 구형받은 김모씨의 공금회령 사실을 인정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9일 소집예정됐던 동국학원 징계위원회(위원장=현성)는 5명의 이사 중 3명이 불참해 연기됐다.

지면안내

8면 변화하는 민중가요

최근 윤민석 씨의 'Fucking U.S.A'를 중심으로 민중가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중가요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7,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모습을 짚어본다.

4면 '노풍' 토론회

5면 학술동아리 특집

졸준위, 취업주간 설정

모의면접 등 다양한 행사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종희·정보통신3, 이하 졸준위)가 오는 14일부터 5일간 '2002년 상반기 취업주간'을 설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졸준위의 한 관계자는 "수시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상반기에도 취업주간을 설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일시: 14일 오후 3시, 5시 30분 15일 오후 3시 장소: 학림관 소강당

▶모의면접

일시: 16일 오후 2시 장소: 학림관 소강당

▶해의 유학·연수 상담

일시: 14일 ~ 16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동국관 3층 로비 중앙도서관 앞

▶모의토익시험

일시: 18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장소: L201 L301 M306 M307

한국 불교논문 목록 출간

도서관 이철교 팀장, 한국불교연구사 총망라

중앙도서관 이철교 학술정보서비스팀장이 '한국 불교관계논문 종합목록'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 불교관련논문 총망라한 △지식 1만 6천 855권 △학위논문 1천 787권 △일본논문 5만 1천 632편 등이 수록돼 있으며, 제목 편·저자명 출판사 발행 연도 출처 책의 형태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책은 1892년 4월 영문잡지에

수록된 'Restoration Buddhism in Chosen(조선에서 불교의 부활)'을 시작으로 2002년 4월까지 110년간 발표된 논문이 수록되었으며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실린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철교 팀장은 "이 책은 지난 100여년간의 한국불교 연구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서관 오늘(13일) 상량식

오는 9월 완공 예정

중앙도서관 신관(이하 도서관관) 상량식이 오늘(13일) 오전 11시 30분 건물 2층에서 열린다.

지난해 5월 1일 착공한 도서관관은 연면적 4천 5백평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공정율은 55.6%이며,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열람실 4천5백석, 최대수용가능장서 85만권 규모의 도서관에는 열람·자료실과 함께 △지하3층=주차장 △지상2층=전시실 음영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배치된다.

또한 건물 전체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며, 여자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될 예정이다.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개교기념식에서 시상

구승희(윤리문화학) 유창조(광고학) 이재진(전자공학) 남경수(의학) 교수가 2002학년도 연구업적 우수교원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교수들은 지난 7일 열린 96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연구지원비 3백만원을 받았다.

우수교원 선정조건은 △최근 3년간 교원업적 점수 600점 이상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게재 △다양한 연구업적 등이다.

보리수

초과일 단상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에 생각하는 경구 중의 으뜸은 아마도 '전상전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일 것이다. 태자서응본 기경에 나오는 부처님 탄생계(誕生偈)로 일반적으로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가장 높네"라고 해석된다.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사방을 각각 일곱 발자국씩 걸으신 다음 이 말씀을 외쳤다고 경전은 기록하고 있다.

부처님의 이 선언은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적 욕망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과 보편성을 일깨우는 확신에 찬 가르침인 것이다.

카스트라는 계급제도가 엄격했던 당시의 인도에서 부처님이 일체중생의 평등을 주창한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었다. 당시의 인도 민중들에게 모든 중생이 각자 부처님 성품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고 당당하게 살아 가라는 생명해방의 대법음(法音)으로 들렸을 것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룬 뒤 "아, 참으로 기이하다. 일체중생 모두가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열반경은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부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이상 그는 더할 바 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존귀함을 알기에 스스로 바른 행과 바른 생각으로 닦아 나아가서 마침내 부처님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결코 태어날 당시의 계급에 의해서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바른 생각과 바른 행으로 귀한 업을 짓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교단은 출신계급을 가리지 않았고, 하천민의 계급일지라도 최상의 브라만 계급과 동등하게 교단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상전하유아독존'의 의미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이번 초과일에는 부처님을 닮았다는 자질을 해보자. 소외된 채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새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자. 1년 내내 4월 초과일일 수 있도록 말이다.

최 승 천
실법연구원 편집장

2면 대동제 일정

은 출신계급을 가리지 않았고, 하천민의 계급일지라도 최상의 브라만 계급과 동등하게 교단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상전하유아독존'의 의미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이번 초과일에는 부처님을 닮았다는 자질을 해보자. 소외된 채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새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자. 1년 내내 4월 초과일일 수 있도록 말이다.

최 승 천
실법연구원 편집장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선생님께

졸업앨범 한 권에서
흐뭇하게 짓고 있는 미소처럼
한결같이 사랑편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때로는 히초리르,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삶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동대신문사

대동제 따라잡기

총학생회

△15일=개막선언 퍼레이드
오후 2시
학내 곳곳 오후 12시
동악 학부학생 한마당 불상 앞
오후 2시
맑은세상 퀴즈대회 불상 앞
오후 5시
학자주점 본관 앞 오후 4시
심야영화제(프린스&프린세스)
△17일=페막식, 학우가요제 만해
광장 오후 9시
△16일=락 페스티벌 만해광장

단과대

불교대 △15일=노예팅 원흥관 앞 오후 6시
△심우장 물품 할인판매
△16일=퀴즈대회 원흥관 1층 주
차장 4시
문과대 △15일=철학과·윤리문화
학과, 16일=독일학과·영문
과) 명진관 앞
△중어중문학과 주점 15·16일
동국관 앞

이과대 △15일=체육대회 오후 12시~3
시 체육관
△16일=바자회 명진관 건물 좌측
△17일=음식경연대회 명진관 건
물 좌측 오후 2시

법대 △16일=법대가요제 동국관 L동
앞 오후 6시

사회과학대 △16일=체육대회 '하나되는 힘
찬 다짐' 동국관 오전 11시
△북한학과=북한물품 판매 15·
16일 동국관 앞

경영대 △반미, 월드컵, 통일 관련 박람회
16·17일 동국관 L동 앞
△광고학과=광고제 15~16일 동
국관 앞

공과대

학생복지위원회

△15·16일=민복 판매, 우리
△트북강연회=학림관 소강당 3시
차·떡 나눠주기
15일 순석춘 초청 '언론개혁'
시사만평 전시회 혜화관 앞
16일 경락 마사지



학교·총학 요구안 관련논의 성사 전망
학생회 "점거농성 등 불교병원 조기개원 반대는 계속될 것"

점거 농성 한 달이 넘도록 한 차
레도 공식적인 대화지리를 마련하
지 못한 학교당국과 총학생회가 대
화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양측은 최근 비공식적인 교섭을
통해 학생회가 지난달 제출한 요구
안과 관련한 공식논의를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협의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기획인사처장 학생
처장 등이 학교측 대표로 나서 학
생회 중앙·단위요구안에 대해 협
의하지만, 불교병원과 관련된 논의
는 배제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총학생회(회장=주진
완·국교4)가 학교측에 제출한 중

양요구안을 살펴보면 등록금과 관
련해 2002학년도 인상분 반환과
'등록금 책정 10대 원칙' 관철 등
이 제시돼 있고, 이와 함께 △재난
전입금 확충 △무분별한 학제 개편
중단과 학부제·모집단위광역화 철
회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이 포
함돼있다.
이와 별도로 총학생회는 불교
병원 12월 개원에 대한 문제제기
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는 자료분석
을 통해 병원재정 등의 문제점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려나가는 것
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통한 외부

언론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반도체4) 부
총학생회장은 "학교측과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점거
농성은 불교병원 조기개원 계획이
철하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
학)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1차 성
명서를 시작으로 불교병원 조기개
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하
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교수회는 병원 운영계획
과 관련한 자료 등을 꾸준히 분석
할 계획이며, 빠르면 이번주 내에
2차 성명서를 통해 지난 성명서보

다 세부적인 자료분석 결과를 공
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교수회장은
"학교당국은 병원과 관련한 자금조
달 등의 내역 공개를 통해 학내 구
성원들의 이해를 얻어낸 후 불교병
원을 개원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 7일 개교기념식 앞
에서 총학생회가 불교병원 조기개
원 반대를 알리는 시위를 벌여 학
교측과 마찰을 빚었고, 불교병원
직원채용 서류접수가 지난주 다량
관에서 진행됐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хин전무대

자명 패스카드

○...학생들이 시험에 틀게 하을
소서(?)
자아와 명상을 듣는 학생들은
지난 주 강한 유혹에 시달렸드
는데.
일부 교수들이 수계식에 참석하
는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면제해주
거나 그동안의 결석을 눈감아주기
로 했기 때문이라고.
이처럼 학점과 직결된 조건때문에
소신과 관계없이 수계를 받는 학생
들도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자명 패
스! 수계식 하나면 충분해요."

예약완료

○...지난주 문화관 그림 식당 주
위에는 헛수고를 하는 학생들이 많
았다는데.
개교기념식 행사 참석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일
반 학생들은 지하2층 식권판매소
까지 왔다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
이라고.
이는 식당 측이 일정시간동안 일
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서이니.
이에 불만을 품은 여학생들 알,
"우리는 발바닥에 '열 날라' 시스
터즈?"

몽쳐야 산다

○...졸업앨범 촬영 기간동안 순
서를 정하기 위한 각 과들의 눈치
작전(?)이 치열했다는데.
알아보니 같은 시간대에 배정된
2~3과의 촬영 순서가 미리 정해
지지 않고 학생들이 모인 순서대
로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이로 인해 배정시간을 맞춰 온
학생들도 촬영 시작을 무작정 기
다려야 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졸업앨
범 촬영, 혼자 시간 맞춰오면 백전
백패(!)"

젯밥이 좋아(?)

○...지난주 개교기념 무료배식을
실시한 원흥관 이리수 매점은 음식
물 쓰레기 양이 급증했다는데.
알아보니 떡을 여러번 먹으려는
몇몇 학생들이 함께 배식되는 잔치
국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무료 배식이라는 점을 이용해 먹
지도 않을 음식을 받는 것은 큰 낭
비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무료로
배식할수록 위험한 사람이 있다. 공
짜타니(!)"



손대면 득! ... '스카페티 국수 다리 경연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느다란 국수가락을 조심스러운 손길로 이
어 붙이고 있다. 경연대회는 지난 11일 본관 중앙당에서 열렸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동연, 전동대회 개최
SSID·쓰리쿠션 신규 동아리 등록

총학생회, 봉능활 진행
지난 10일 총복 제전에서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
가 지난 10일부터 4일간 총복제전
에서 봉능활을 진행했다.
'WTO 쌀 수입 개방 반대, 한
철레 자유무역협정 철폐'를 기치
로 한 이번 봉능활에는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중앙도서관 앞
에서 발대식을 진행한 후 제천으
로 떠났다.
참가한 단과대는 이과대 사회과
학대 경영대 정보산업대 사범대 야
간강좌총학생회이다.
한편, 생지대학생회는 오는 24일
부터 3일간 같은 장소로 봉능활을
떠날 예정이다.

은 전동대회가 끝난 후 모임을 가
지고 오늘 분과장 회의를 소집하
기로 했다.
이밖에 동아리연합회 차원의 동아
리 입지 개선방법과 사이버 커뮤니
티 개설 제안이 기타안건으로 상정
됐다. 이에 대해 동연비대위는 지난
8일 사이버 커뮤니티를 이미 개설했
다고 밝히고, 동아리 입지 개선을
위해 동아리 홍보지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우편함 관리문제와 온수기 교체는
각각 학생복지실 관계자와 시설관리
팀과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보다 값진 대학 생활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떠들썩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곳...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상: 02학년
지원서 교부 및 접수: 5월 30일 오후 5시까지
필기 시험 및 면접: 5월 30일 오후 6시
장소: 본사 회의실 (학생회관 지하 1층)
문의: (02) 2260-3491~2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가 지급되며,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제17회 춘계명찰순례안내
1. 순례일자: 2002. 5. 24(금) ~ 5. 25(토) (1박2일)
2. 순례장소: 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
3. 참가대상: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참가비: 오전원 (₩5,000)
4. 접수기간: 2002. 5. 13(월) ~ 5. 23(목)
5. 접수처: 본관 3층 학생복지실 (☎ 2260-3048)
6. 출발일시 및 장소: 2002. 5. 24(금) 오후 3시 30분, 정각원 앞

학 생 처
임용고사 설명회
1. 일 시: 2002년 5월 20일 (월) 16:00 ~
2. 장 소: 학림관 소강당
3. 목 적: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들의 학문적 심화 및 의욕을 고취하고 임용고사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교원임용고사 설명회를 개최함
4. 대 상: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자
5. 강 사: 구평희 (현 구평희임용고사시험원 책임교수)
6. 교육 내용
1) 2001년 시행 교육학 및 전공 출제경향 분석
2) 전국 교육공무원의 현실과 전망
3) 2002년 교원임용시험 전공 및 교육학 수험대책 및 합격전략
4) 2002년 교원임용시험 논술 및 면접시험 대처방안
7. 교원임용시험관련 안내책자 및 기술문제 제공

2002년 여성 주간 맞이 글 공모
내 속의 울분을 털어라
총여학생회에서는 5월 21일~23일 동안 '건강한 여자가 아름답다' 라는 주제로 여성 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역시 정 신적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 주간 행 사의 일환으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관한 글을 공모합니다. 특별한 형식없이 A4 용지 1장 내외로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 써주시 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글을 기다립니다.
1. 공모 자격: 동국대 남녀 학우 모두 가능합니다~
2. 공모 기간: 2002년 5월 10일(금)~ 20일(월)
3. 접수 방법: dguchw@lycos.co.kr (총여학생회 메일) 혹은 계산관 2층·중앙도서관 2층·동국관 5 층 여학생 휴게실의 공모함.
4. 심사 기준: 대부분의 학우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단,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내용은 제외)
5. 유의사항: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주세요. (없을 시 무효 처리)
6. 결과 발표: 입상 작품에 한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입상 작품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추후 총여학생회에서 발행하는 자료집에 실릴 수 있습니다. 시상식은 5월 23일(목) 6시 학생회관 앞 예정.
7. 우수작 시상: 다털어 상 1명(PC 컵), 왕시원해 상 1명(CD 꽃이), 씩날러버러 상 1명('좋은 생 각' 1년 구독권), 초특급유쾌해 상 1명(썸 크림), 정밀화관해 상 1명(문화상품권 3만 원 상당). (무순)
*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됩니다.

새로운 한일관계의 재조명 특강
일 시: 2002년 5월14일(화) 13:30~
장 소: 동국관 (M409)
주 제: 새로운 한일관계의 재조명
강 사: 김세택 교수
강사 약력: 주에집트 총영사, 주 싱가포르 대사, 주 덴마크 대사, 주 오사카 총영사 역임
현재 평통 상임위원,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본교 법과대 객원교수
법 과 대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교수 초청 학술강연회 개최 안내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Moscow State University) 교수 초청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강연자: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사학과 교수 Mikhail N. Pak (미하일 박)
2. 강연제목: 러시아에서의 '삼국사기' 연구 (Russian Translation of Samguk-Sagi)
3. 사용언어: 영어
4. 일 시: 2002. 5. 16(목) 15:00~17:00
5. 장 소: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동국관)

사설 대동제 통한 단합 이뤄야

또다시 대학가에 축제기간이 돌아왔다.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대동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대학마다 저마다의 색을 가지고 진행될 올 대동제에는 조만간 열릴 월드컵을 기념하는 체육행사들도 계획되어 있어 한층 축제 분위기를 더할 것 같다.

본교 역시 이를 후면 개막될 대동제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나를 미치게 하는 몇 가지 이유'라는 기치로 열리는 이번 대동제의 주요 행사는 락 페스티벌, 퀴즈대회, 영화상영 등 내용면에서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또한 단과대학 대동제 일정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점 역시 술 문화가 주가 되어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게 한다.

하지만 올해 총학생회가 단독으로 축제를 준비하던 예년과 달리, 일반 학생들로 꾸러진 '대동제 기획단'과 함께 축제를 준비한 것은 여러모로 참신한 시도이다. 이는 점거농성이라는 상황과 새터이민계 약 사건 등으로 총학생회 내 인력부족에서 기인했다 손 치더라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또한 스승의 날을 맞아 마련한 교수와 학생이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는 축제를 즐기는 대상이 단순히 학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동제는 학내 구성원들의 단합을 추구하는 대동(大同)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매년 구성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90년대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행

사 내용이 현재 2000년대 학번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에 반해 축제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구성원들의 단합과 개별화된 요구를 한꺼번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

앞서 총학생회의 변화는 그런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우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단 모집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요구를 수렴하려 했다는 것과 축제의 소비 대상을 넓혔다는 것에서 작지만 큰 변화를 이룬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참여다. 참여하지 않고 변화를 바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대동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어느 때보다 학내 구성원들의 분열이 심각한 현실에서 대동제를 통해 하나되는 동약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논단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검증' 안된 언론사 후보검증

올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가 정상궤도에 돌입할 수 있느냐 후퇴하느냐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해방 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식민적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친미정권이 들어서고 4.19와 5.16을 거쳐 30년 동안 군사정권을 경험한 후 우리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0년을 겪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민주정부'는 실정에 실정을 거듭했지만 역사는 그대로 과거를 청산하며 서서히 개혁과 평화통일의 길을 개척해왔다. 하지만 수구세력은 실정을 유도해 개혁과 평화통일의 담을 무너트려 뚫고 버려 버리고 있다. 이는 명백히 역사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현 한국사회는 수구와 개혁, 친미와 자주화, 냉전회귀와 평화정착, 남북대결과 화해협력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급변 대선은 이들 세력의 결전의 장이라는 성격이 짙다. 이 국면에서 조선과 동아, 중앙 등 일부 언론에서 대선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들은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변한다.

객관성 결여된 비판

적어도 조선과 동아는 분명하게 수구와 친미, 냉전과 대립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가장 선두에서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사를 일부에서 합리적 열린 보수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 또한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신문들이 불변부담을 견디면서 중립적으로 후보를 검증해낼 수 있을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검증'이라는 용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언론은 국민들이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심층보도와 분석에 의해 제공하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검증 다 해버리면 국민은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 왜 느닷없이 신문들이 검증을 한다고 나서는 것인가? 게다가 '검증'이라는 위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말이다. 조선일보는 아예 '후보검증위원회'라

는 기구를 띄우고 본격적으로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언론 사상 최초'란다. 이게 자랑할만한 일일까? 왜 진즉에 이렇게 좋은 일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내게는 전대미문의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검증의 이면

조선일보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대선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기 훨씬 이전에 행했던 각종 발언과 행적은 물론, 그들의 사상과 경험을 담은 저서와 기록물 등을 발굴해내고 이를 일일이 분석해 그들이 보여준 언행의 일관성과 진실성을 추적해 들어갈 것"이라는 엄포다. 그것은 바로 사상검증이다. 색깔론인 것이다. 의도는 뻔하지 않은가? 개혁적 후보에 대해 과격하지 좌파나 하면서 빨간 칠을 하겠다는 것이 과거와 현재 발언과 기록물을 제멋대로 거두절미하고 짜집기해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조선일보가 자주 해왔던 수법이다.

중앙일보의 보수·진보의 잣대로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치인들의 이념이란 것을 측정했다. 그 결과 노무현과 이부영이 진보적이며 김종필 최병렬 이회창이 보수적이라고 한다. 허무맹랑한 조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정치인들은 뭘란 말인가? 사실은 노무현과 이부영은 보수로, 김종필 최병렬 이회창은 그보다 더 우파적인 정치인으로 분류돼야 마땅하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진보'에 대한 열려진 반응이 일관하는 상황에서 보수·진보에 대해 조사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선거까지 편파와 허위·왜곡보도를 자행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온 신문들이 이제는 '검증'이라는 술수를 동원하여 국민의 눈을 흐리려 하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은 이같은 교활한 속임수를 간파하여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인정 논란

감정적 대응보다 진상규명 노력을

"경찰을 인질로 잡아 불타 죽게 한 학생들"

13년 전 5월 4일,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1989년 5월 3일 동의대에서는 학생들에게 불합한 경찰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다가 불이 나서 경찰 7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할 수 있는냐"는 식으로 학생들을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흐른 지난달 27일, 당시 동의대 학생 46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입시부정을 비롯해 사학비리에 맞서 시위를 벌였던 것이 민주화운동이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반응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신나 뿌리고 불질

렀는데 민주화운동"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경찰과 순직 경찰의 유가족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학생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 순직 경찰들은 민주화의 걸림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에서도 사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경찰을 죽게 만든 것이 학생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재의 원인과 경찰들의 사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최종 판결에서도 학생들은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학생들의 모임인 5.3동지회 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이나 경찰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사고 후 대학 내 배치된 경찰과 도서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동의대 학생들의 모습.

화재의 원인과 사인을 재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경찰과 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동안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경찰을 죽였다는 일부 언론과 경찰의 주장만이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또다른 비판으로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은 순직 경찰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추모단체인 동의대 5.3동지회 측은 "한 쪽의 명예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한 쪽은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한 것으로 받아들

이는 이번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이 당시 순직경찰에 대한 단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순직한 경찰과 이번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학생들은 모두 암울했던 시대가 낳은 희생자들이다. 13년 전이나 다름없이 여론몰이 식으로 사실을 부풀려 감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진상규명을 통해 경찰유족들과 당시 학생들 사이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동의대사건 경과

△89년 5월 1일 도서관 앞에서 메이데이 기념 집회 가집. 가야 1파출소까지 평화 시위.
가야 3파출소 가는 길에 경찰과 충돌. 파출소장이 칼빈총 10여발 발사.

△89년 5월 5일 휴교령 내림.

△89년 6월 1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후 대량 구속 기소.

△89년 9월 24일 1심 공판. 기소유예 이외 선고자 31명 함소.

△89년 5월 2일 경찰 총기 난사에 항의해 학교 앞 삼거리까지 시위 벌임. 도서관에서 항의농성. 시위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복경찰 5명을 붙잡고 경찰은 시위 학생 8명을 체포.

△90년 2월 2일 2심 공판 때 화재 원인에 대해 현장측소 모형실현.

△90년 2월 21일 7명 집행유예로 석방.

△89년 5월 3일 새벽 5시 전경들 도서관 진입해 학생들과 대치. 도서관 7층에서 대형화재 발생. 경찰 17명 사상(사망 7명)

△90년 6월 26일 대법원 확정 판결.

△02년 4월 27일 민주화운동 인정.

동기만평

임희정 texaswind@hanmail.net



외국어 PASS제 시행 안내

해당 신입생 및 재학생은 다음의 외국어능력을 졸업시까지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므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Pass제】

- 1. 시행시기 : 2001학년도부터
- 2. 적용대상 :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불교대학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 3. 대학별 영어자격요건

구분	토 톨	토익	토플스	비고
불교대	487점 이상	560점 이상	433점 이상	2002신입생부터 적용
문과대	일반	505점 이상	600점 이상	483점 이상
	영어영문	540점 이상	700점 이상	600점 이상
이과대	512점 이상	620점 이상	505점 이상	
법과대	533점 이상	680점 이상	575점 이상	
사회과학대	522점 이상	650점 이상	539점 이상	
경영대	533점 이상	680점 이상	575점 이상	
생명자원과학대	505점 이상	600점 이상	483점 이상	
공과대	522점 이상	650점 이상	539점 이상	
정보산업대	533점 이상	680점 이상	575점 이상	
사범대	일반	505점 이상	600점 이상	483점 이상
	체육교육	-	-	-
	미술	-	-	-
예술대	연극	-	-	-
	문예창작	-	-	-
	영화영상	533점 이상	680점 이상	575점 이상
야간강좌	-	-	-	미시행

* 상기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영어 Pass제 주관부서 : 언어연구교육원

5. 영어 Pass 인증

가. 외부 공인기관 인증

- 톨 : 한미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점수
- 토익 : (주)시사 YBM에서 주관하는 시험점수
- 토플스 : 서울대 토플스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점수

나. 본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토익시험점수

6. 기타사항 : 전과 후에는 변경된 전공에 따라 대학별 영어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불교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전국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에 합격하여야만 졸업 가능함.

서울캠 교무처 · 언어연구교육원

영어 PASS제 시험 시행 안내

- 1. 대상자 : 2001학번 재학생
- 2. 시험 종류 : 모의토익
- 3. 일 시 : 2002. 5. 1(토) 10:00 ~ 12:20
- 4. 시험 시간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입실완료	
10:00~10:20	답안지 작성 및 주의사항 전달/ 휴식 및 시험 준비	
10:20~11:05	Listening 진행	쉬는 시간
11:05~12:20	Reading 진행	없이 진행

- 5. 시험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사 행정 - 영어 PASS제 - 시험신청(신청결과 출력)
- 6. 시험 신청 기간 : 2002. 5. 20 ~ 5. 24 (5일간)
- 7. 준비물 : 컴퓨터용 싸인펜(연필볼펜), 수험표(출석결과), 신분증
- 8. 성적 처리 결과 확인 (7월 이후 가능) : 홈페이지 - 학사 행정 - 영어 PASS제 - 결과 확인
- 9. 문의 : 각 단과대 교학과 및 언어연구교육원 ☎ 2260-3470/1

서울캠 언어연구교육원

주재현 JFKN 공개 강의

본 언어연구교육원에서는 재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 리스닝을 주로 하는 주재현 JFKN 강의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개설에 앞서서 공개강의를 실시하니, 재학생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02. 5. 20(월) - 5. 23(목) (4일간)
- ▶ 시 간 : 오후 6:10 ~ 7:00 / 7:10 ~ 8:00
- ▶ 장 소 : 동국관 L401
- ▶ 특 징 : 미국현지 당일 방송 영어를 교재화하여 수강생들의 실제적인 영어의 듣기 능력을 증대시키고 속독, 발음 교정을 통해서 Total English Class를 지향함. 듣기 40%, 읽기 30%, 발음교정 30%의 Vocabulary
- ▶ 주교재 : ABC, NBC, CNN방송 중에서 최신 News를 주간 교재화 및 최신 영화 (주간지 4~5권, Tape 4~5개, 매월)

서울캠 언어연구교육원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맞이 제4회 연등 & 축원문(사연) 대공모

감사의 달 5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월을 보내는 방법...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의 불을 밝히고, 축원의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학생실과 정각원에서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동약의 모든 분을 (개인/단체불문) 대상으로 연등과 축원문(사연)을 공모합니다.

▶ 공모부문

- 1.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연등부문
가장다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창의적인 연등을 만들어 보세요.孝, 師恩,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통일기원, 합작기원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은 독창적인 등이면 됩니다.
- 2. 감동적인 축원문 부문
감사의 마음, 기원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분에 대한 고마움, 자신을 일으켜 세운 스승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미안했던 사람에게..... 200자 원고지 5매 내외(A4 1~2장) 분량으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원문을 쓰시면 됩니다.

▶ 시상내역

	연 등 부 문	축 원 문 부 문
으뜸상(각 1명)	상금 30만원과 상장	상금 20만원과 상장
버금상(각 1명)	상금 20만원과 상장	상금 10만원과 상장
아차상(각 2명)	상금 5만원과 상장	상금 5만원과 상장

▶ 공모기간 및 접수처 : 2002년 5월 14일(화)까지, 계산관 1층 여학생실(사범대 옆)

▶ 발표 및 시상식 : 2002년 5월 17일(금) 오전 10:30 불상 앞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 ☎ 2260-3056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캠 정각원 · 여학생실

동약로

막연한 기다림



“여기서 5분만 더 기다려보자. 곧 카풀차가 올 거야.”
 “우리 20분이나 기다렸어. 그냥 택시타고 가자.”
 카풀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 앞. 끝내 차가 오지 않자 기다리던 여학생들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주캠 총대의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카풀제를 운영 중이지만 분교를 다니는 차량 대부분은 이를 시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카풀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지지부진하자 총대의원회는 △카풀 신청자에게 세차권 제공 △카풀 스티커 제작 △카풀 신청서 배부 △PC홍보 등을 통해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대의원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신청한 사람은 30여명에 불과하다. 본교 교직원, 학생 중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800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4%에도 못 미치는 적은 인원이 카풀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카풀제도에 참여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잠시 차를 세워 목적지를 묻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의식이 카풀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때때로 카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해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표지판이 왜 여기에 있지?”
 카풀 장소에 다가선 한 학생이 당황해한다. 카풀 장소가 택시 승강장과 거의 같은 곳에 있어 카풀장소에 다가서지도 못한 채 카풀차량이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친화적인 운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카풀제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많은 이들의 참여뿐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지현 기자
easyl01@mail.dongguk.ac.kr

‘노무현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새 정치 향한 열망 ‘노풍’ 일궈내

국민경선 통해 지지기반 마련 ... 집권당 대선후보로 부상



토론회 참석자들이 '노풍'의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벌써부터 올 상반기 정치권 최대 사건으로 '노무현 돌풍'을 꼽는 사람들이 있다. '이인제 대세론'의 다크호스 정도로 인식되던 노무현 후보가 국민경선제를 치르면서 '노풍'이라는 말을 유행시키며 일약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단순히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현상으로 떠오른 '노풍'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큰 관심사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풍을 이해하고 다가올 대선의 정치지형을 전망하기 위해 '한국사회 지각변동, 노무현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토론자들은 현실정치인으로서 득표전략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기반을 '합리적 개혁세력'이라고 일컬은 순현재 운영위원장은 노무현 현상이 대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 손석춘 논설위원은 "언론인들과의 모임에서 노무현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은 것은 악재뿐'이라는 전망이 주된 의견이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성공회대 조현연 교수 역시 현실정치인으로서 노무현 후보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머지않아 '노풍'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토론자들은 현실정치인으로서 득표전략

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개혁적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하대 정영태 교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일 뿐 노무현 후보를 진보적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으며,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더욱 보수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대선에서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대결보다 진보진영의 대응과 대선 이후 정치 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진보진영 내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비판적이지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듯 '진보정당과 노무현'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자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조현연 교수는 국민들의 정치변혁에 대한 열망이 민주노동당·사회당이 아닌 노무현을 통해 나타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노무현과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이명재 정책국장은 "앞으로 노무현 후보가 보수화되면 민주노동당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노풍'이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사모 명예남 대표는 "진보정당과 '노풍' 두 세력간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진보정당이 기성정치의 회오리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계속 살아 남아 진보 대 보수의 정치지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 날 토론을 마쳤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대학가 주소지 이전운동 지역정치관심 상승 기대

“우리 학교 주변 지역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난 6일부터 서울대에서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을 중심으로 '지방 출신 학생 주소지 이전운동'이 펼쳐졌다. 주소지 이전운동은 지방 출신 학생들이 행정 주소를 서울로 옮겨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투표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지방에서 진학한 학생들은 선거를 할 때 사는 곳과 상관 없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이기중 집행위원장은 “학교 주변에서 최소한 4년이상 살게 되는 대학생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주소지를 이전하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의 지역정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교 역시 서울 캠프 약 35%, 경주 캠프 81.1%가 각각 서울, 경기 또는 경주 외 다른 지방출신 학생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거철이 되면 거주지 주소지로 옮겨가 투표를 하거나 거리 문제로 인해 투표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에서 본교에 진학한 박재민(사과대1)군은 “투표를 하기 위해선 부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부족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권자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권혁제(일문2) 군은 “대학생들이 지역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다.

현재 본교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은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볼 때 서울 또는 경주의 시민이지만 행정 거주지 주소상 타 지역의 주민이다. 선거 때 떠나는 한 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된다면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빛만 남기게 한 당신, 떠나라!”

무분별한 카드발급 신용불량자 양산 ... 대책촉구 캠페인 열려

“빛으로 사세요 -B칸카드” “내게 '빛'을 주는 나의 RG카드야”
 요즘 인터넷 상에선 이와 같이 카드 회사 광고 패러디가 유행이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의 살인, 은행강도, 사살과 같은 피해가 연일 신문지면에 등장함에 따라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들의 책임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과 카드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거리 선전전을 하며 카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참여연대 등 몇몇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신용카드 감시와 개선을 위한 '스톱(STOP) 신용카드'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 날 캠페인에 참석한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카드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카드회사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

책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측에도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현금대출 사용액이 전체 사용의 70%를 차지함에 따라 양산된 신용불량자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는 카드회사 측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미성년자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이 신용불량자를 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용불량자에게 일시에 돈을 갚도록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신용카드로 인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며 지난 10일부터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를 개설해 수수료인하를 촉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소비자 핫라인'을 설치해 불법 카드발급에 대한 각종 피해제보 및 고발, 집단소송 등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같은 날 종로 2가 YMCA 앞에서 서울 YMCA

대학생 소비자 행동단 주최로 '무차별적인 무(無)신용카드 발급'의 폐해를 고발하며 카드를 찢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카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회적 피해가 단순히 사회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일어난 서울 상봉동 한빛은행 소총 강도사건은 카드 빛에 쫓긴 대학생들이 범인임이 밝혀 졌으며, 지난 달 28일에는 20대 2명이 카드 빛 때문에 수면제를 나눠 먹고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1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기에 신용카



지난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참여연대의 '스톱 신용카드' 캠페인이 진행됐다.

드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110만 6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들은 직접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인들이나 예비사회인인 대학생들 모두의 문제일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ram@dongguk.edu

한국상경학회 세미나 현장을 찾아서

K.C.C.에 가면 경제가 보인다

‘광고기법’ 주제로 강연 ... 함께 하는 공부로 지식 공유

본교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6개 대학이 활동하고 있는 연합동아리 한국상경학회(회장=최인철·경연대2, Korean Commercial economic Conference, 이하 K.C.C.)는 매주 수요일마다 각 대학 동아리들이 모여 ‘본부집회’ 세미나를 갖는다. 지난 8일에는 이화여대에서 ‘광고 기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연세대학교 김승우(사회계열2) 학생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K.C.C. 활동을 했던 이화여대 조해민 선배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강연은 △상품 혹은 브랜드 명을 일시에 노출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티저(teaser) 광고 △천박하거나 통속적인 이미지를 역이용해 시선을 끄는 키치(kitsch) 광고 △여러 소재를 융합해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브랜드의 개성을 살리는 퓨전

(fusion) 광고 △원작이 지니고 있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차용해 재구성함으로써 효과를 얻는 패러디(parody) 광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양한 광고 기법의 종류와 예, 각 기법의 장·단점 등을 살펴본 이날 강연 내용은 여느 학술 세미나 못지 않을 만큼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했다.

특히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예시 광고를 직접 보여주는 등의 강연 진행은 단순히 세미나를 ‘여느’ 데에만 의의를 두거나 형식만 갖추는 데 머무르지 않고, 단 한번의 세미나를 통해서도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려는 모습이었다.

또한 강연이 끝난 후에는 주제와 관련해 각 대학별로 문제를 내고 맞춰보는 퀴즈순서도 마련해 자칫 딱딱하게 흐를 수 있는 세미나를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K.C.C.는 본부집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선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게임이론’ ‘내쉬균형이론’ 등의 지식을 공유해 왔다.

뿐만 아니라 K.C.C.는 매주 목요일 자체적으로 갖는 ‘자부집회’를 통해 ‘프랜차이즈’ ‘그린 마케팅’ ‘제로 섬 게임 이론’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주목할 만한 경제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자유주제로 ‘5분 스피치 대회’를 열어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64년 창립 이후 올해로 39년째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성장해 온 K.C.C.가 앞으로도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나가길 기대해본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학술동아리 특집

대학 내에는 ‘대학문화의 꽃’을 상징하는 많은 동아리가 있다. 그 중 학술동아리는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초학문에 대한 외면, 동아리 위기 등의 상황에서도 연구의 전당인 상이탑을 지키고 있다.

이에 본사는 동아리 내에서 다양한 학문활동을 하고 있는 학술동아리를 찾아 이들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학술2분과장 인터뷰 백종혁(경영3) 군

“열띤 토론과 함께 하는 낭만”



학생회관에서 매주 정답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학술 동아리 회원들. 이들을 대표하는 동아리연합회 학술 2분과장 백종혁(TIME연구회장·경영3)군을 만나 현재 학술동아리의 어려운 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학생들이 학술 동아리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학과와 관련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이유다. 이는 전공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앞서 공부한 선배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과와 관련 없는 동아리에 가입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들은 전공 외의 다른 학문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얻고자 해서 동아리를 찾는다.

- 최근 동아리 인원 수급 등 동아리 위기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학술 동아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공연·봉사 동아리도 마찬가지로지만 학술 동아리는 거의 매일 공부하고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호기심으로 동아리에 가입했던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 쉽게 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술 동아리는 행사나 보여지는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신입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중제·동연제 때 일반 학생들에게 동아리를 홍보하기가 힘들다.

-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 그동안 학술분과에 속한 동아리끼리도 함께 할 행사가 없어 동아리 홍보가 더욱 힘들었던 것 같다. 때문에 올해 동연제 때는 다양한 동아리가 모여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구상 중이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학술 동아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열띤 토론과 함께 하는 대학의 낭만을 보여 주고 싶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4각4색 소모임 · 동아리

기계공학과 소모임 - M.A.C. & KART 들이 함께 만드는 무인 자동차



기계 자동제어그룹(Mechanical Automatic Control group)을 뜻하는 M.A.C.은 메카트로닉스·로보틱스·자동제어 학술 동아리다. 이들은 동역학과 제어공학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를 직접 해석하고 설계해 제작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C언어, 핸디보드(Handy Board) 등 학과 수업과 관련된 내용에서부터 실제 제작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까지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

M.A.C.은 지난 99년 자율이동 로보틱스로 만든 진공청소기를 실제 제작하기도 했으며, 2000년 고려대에서 열린 제1회 무인자동차 대회에 KART와 함께 출전, 코스 우승을 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연구회 KART는 학과 공부를 통해 배운 지식을 이용해 자동차를 연구하고, 직접 제작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97년 처음으로 125cc 엔진을 이용한 JALGULLOR 1호를 제작하며 자작 자동차 연구회로 발전한 KART는 이후 영남대학교에서 열리는 전국자작자동차대회에 매년 출전하며 자작자동차를 꾸준히 제작해 오고 있다. 또한 KART는 매주 화요일 1, 2학년들이 모여 컴퓨터 설계, 캐드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은 자동차 구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법학동아리 - 켈젠(KELSEN) 체험을 통해 배우는 법의 정의



법의 순수이론을 주장한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켈젠의 정신을 이어 받은 학술 동아리 켈젠은 민법에 대해 연구하며 법의 순수성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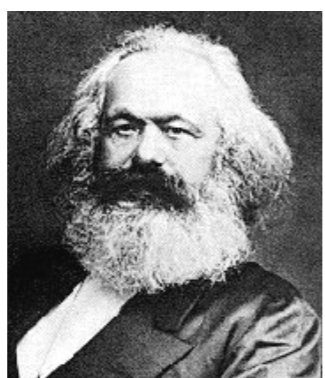
매주 2회 빈 강의실에서 모임을 갖는 50여 명의 켈젠 회원들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등을 다양한 사례와 토론을 통해 배운다.

얼마전 켈젠 회원들은 물권법의 한 분류에 속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실제 사례를 놓고 토론했다. 그들은 소유, 관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몇 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맞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다. 켈젠 회원들의 토론은 사례를 단순히 법에 적용해 놓고 그들을 판가름하는 것보다는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체험적 과정을 중요시한다.

또한 켈젠은 회원들이 직접 피고인, 원고인, 변호사, 판사가 되어 법원에서 보는 모의재판도 갖는다. 켈젠의 한 회원은 “모의재판은 1년 동안 이론상으로 탐구한 민법을 행동에 옮겨보는 체험 학습”이라고 말한다.

켈젠 회원들의 민법 연구는 법을 객관적이면서도 딱딱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좀 더 쉽게 법에 다가서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학술1분과 - 맑스철학연구회 색다른 시각으로 사회 바라보기



맑스철학연구회는 철학과 사회과학에서 문화적 현상이나 시사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현상을 주제로 공부하는 학술동아리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는 공동 학습을 통해 색다른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문 읽기의 혁명’ ‘재미있는 철학 강의’ ‘공

산당 선언’ ‘자본의 이해’ ‘프랑스혁명사 3부작’ 등 18여 권에 달하는 교재로 철학이론에 대한 내용, 맑스의 사상, 자본주의 비판 등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또한 맑스철학연구회는 세미나와 토론 성과를 토대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역사탐구 소모임 - 천부인 탁본·학술·답사 통한 역사연구



옛사람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본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탁본을 뜨기 위해 모여 있을 이들, 국사학과 내 역사탐구 소모임 ‘천부인’이다.

천부인은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환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바람, 비, 구름을 뜻한다. 이것은 농경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 천부인에서는 역사연구에 필수 요소인 탁본, 학술, 답사가 이를 대신한다.

현재 일주일에 2번의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는 천부인은 사찰, 불상, 의복, 벽화 등 주로 미술사에 대해 토론한다. 이때 토론은 매주 정해진 주제에 대해 각자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선배들의 졸업 논문, 토론내용 등이 실린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 이는 천부인이 학생들로부터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원인따라 달라지는 두통치료

두통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약 70%가 1년에 한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이다. 다른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두통 자체를 질병으로 보기도 한다.

일상진료에서 많이 보는 질환 중의 하나이지만, 그 발생기전이나 병태 생리가 복잡하여 정확히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서양의학에서는 편의상 원인 질환 없이 두통이 주증상을 이루는 본태성두통(1차성 두통)과 다른 원인 질환이 있으면서 그 하나의 증상으로 두통이 있는 증후성두통(2차성 두통)으로 나눈다.

두개강내 병인(감염, 종양, 뇌혈관질환, 두개내 압항진 및 저하)이나 다른 부위(눈, 코, 귀, 구강, 치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2차성 두통을 제외하면 편두통으로 대변되는 혈관성 두통과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긴장으로 머리 근육의 긴장으로 발생하는 긴장성 두통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흔한 병이다.

그러나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두통도 사라지는 2차성 두통과는 달리 1차성 두통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뚜렷한 원인이 없어 진통제나 혈관확장제, 안정제를 투여하는 대중적인 요법을 사용한다.

한의학에서는 우선 기질적 원인이 밝혀진 2차성 두통을 배제시킨 후, 심리적 원인이 중요한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에 대하여 각 환자의 한열·표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치료한다.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저자 이제마(1837~1900)는 ‘원래 냉이 성한 환자는 그 두통도 또한 열몸이 아니고 냉몸이며, 원래 열이 성한 환자는 그 두통도 또한 열몸이다’ 라는 두통 치료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진통제나 혈관확장제, 안정제로 해결되지 않는 두통에 대해서도 한열·표리에 따른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두통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면은 충분히 △운동은 규칙적으로 △두통약을 과용하지 말며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스트레스는 바로 바로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을 꼭 찾아야 할 것이다. △갑자기 다른 극심한 두통이 발생한 경우 △점점 두통의 양상이 심해지며 신경학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고열과 함께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뒤통이 뻣뻣한 경우 △교통사고 등으로 머리 외상을 입은 후에 발생한 두통의 경우 네 가지이다.

21세기 지식인 사전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Galbraith, John Kenneth)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저술가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Galbraith, John Kenneth·94)는 1908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각종 정치 집회에 참여하면서 일찌감치 정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갤브레이스는 1931년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후 1934년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해부터 하버드대학 강단에 섰다.

그가 학계에서 유명해진 것은 흔히 그의 경제이론 삼부작으로 통하는 ‘미국의 자본주의(생애력 개념)’ ‘풍요한 사회’ ‘새로운 산업국가’를 저술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를 통해 당시 경제학계에서 일종의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던 개념들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비자 주권’ 개념을 ‘소비자의 욕망이 생산자의 광고와 판매술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창조되고 있는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주류경제학계로부터 ‘경제학의 이단아’로 낙인찍히게 됐다.

하지만 그는 최근까지도 미국의 정치·사회·경제체계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비판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대중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인기 있는 석학의 자리에 서있다.

매체비평

공연 편

쇼! 태권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엑스트라들의 향연일 뿐”



'세계적인 문화상품'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년 정기공연에 들어간 '쇼! 태권'.

태권도를 비롯한 한국 전통무술에 다양한 쇼 연출을 가미했다고 한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념 해외국인에게 태권도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 게다가 중국의 경극, 미국의 라스베가스쇼, 일본의 가부키에 버금가도록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만들겠다고 한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1년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 내놓은 '쇼! 태권'.

은 무경을 열어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쇼! 태권의 즐거리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의외로 단순하게 진행된다. '정권도장'이라는 태권도 수련장에서 대사부의 가르침 아래 열심히 무예를 닦는 수련생 '진'과 '선'. 그러던 어느 날, 진과 선이 무도회장으로 놀러간 틈을 타 사악한 무리들이 사부를 죽이고 대대로 내려져 오는 무술교본을 빼앗아 간다. 이에 진과 선은 '난데없이' 나타난 말뚝이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고대 무예의 신을 만나 복수를 다짐하기에 이른다. 결국 악의 무리와의 한판대결로 진과 선은 '예상대로' 수련장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품새, 격파, 겨루기 등의 태권도시범이 나온다. 거기에 다른 무예와

춤을 접목시켜 태권도가 딱딱하기만 한 무예가 아담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물놀이부터 타악기 연주, 사자춤, 무희들의 쌍검춤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시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문제는 '악방의 감초'처럼 등장해야 할 볼거리들이 오히려 공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쇼! 태권에 '태권'은 간데 없고 '쇼'만 남아있다. 판에 박힌 무렵지처럼 뻔한 줄거리의 개연성까지 없이 전개되고, 뜬금 없이 나오는 우리 가락과 서양음악의 오묘한 조화(?) 역시 다분히 쇼적이다. 게다가 활동성을 감안한 태권도복을 제멋대로 '폴티'로 변형시키고 야한 옷차림의 무희들이 장난으로 내치르는 발차기로 태권도의 참모습과 의미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으려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극을 전공한 남자 주인공과 기계체조를 전공한 여자 주인공의 태권도 실력은 아무리 봐도 어설피기만 하다. 대사 없이 진행되는, 오로지 현란한 액션만이 난무하는 쇼! 태권. 극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도, 이야기도 없는, 심지어는 보여주겠다던 태권도도 없는 '엑스트라 쇼! 쇼! 태권. 세계적인 문화상품을 만들겠다는 어설피고 서툰 의욕이 결국 진정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말았다. 막대한 제작비와 화려한 배우 캐스팅을 내세운 96년 '귀천도'와 2000년 '비천무'가 왜 흥행에 참패했는지 쇼! 태권 기획자들은 정말 모르나 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대중'이 있기에 민중가요도 있다오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Fucking U.S.A'와 같은 미국을 반대하는 내용의 민중가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창작되고, 또 보급되고 있다. 이는 민중가요를 7,80년대 대학가 술집에서 술에 취해, 기관원 물레 부르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고, 90년대 시위 현장에서, 광방이나 풍어리 방에서 모여 부르는 그런 모습과도 또 다른 모습이다. 바로 민중가요는 변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 소리를 들어라

민중가요는 사실 아주 정의 내리기 어려운 용어이다. 보통 '민중에 의해 창작되고 불리워지는 노래'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운동권 가요'로 정의된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다. 70년대의 '아침이슬'은 원래 상업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시위현장에서 불리면서 민중가요의 고전으로 자리잡았고, 87년 6월항쟁 때 거리에서 시위 군중들이 부른 '우리의 소원'도 교과서에 실린 노래이지만 민중가요의 대표적인 노래로 남아있다. 그리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나 '안치환'의 음반에 실린 노래들은 상업적인 음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민중가요가 아니라고 하기에 어려운 곡들이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정확한 정의는 내리지 못하지만 대중가요와는 다른 '민중들의 요구가

담긴 의식적인 노래'를 통칭하여 민중가요라 부르고 있다. 1970년대는 '아침이슬' '늪은 군인의 노래'로 대표되는 김민기의 노래와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가비(노래가사바꾸기)' 등이 유행했다. '해방가' '농민가' '홀라송' '탄아판야'와 같은 시위 노래, 그리고 기독교 운동권에서 들어온 '오 자유' '우리의 믿음 치솟아' '우리 승리하리라' 같은 노래가 있으며, 여기에 '진도아리랑' '백악타령'과 같은 전래민요와 '영자송' '고아'와 같은 구전가요, 심지어 '백치 아이다' 같은 대중가요도 불렀다. 이처럼 70년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민중가요는 목적의식적으로 창작되었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노래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며 선택된 것이 많았으나 아직 명확히 흐름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민중가요라는 하나의 장르가 정착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최초의 민중가요는 1981년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며 그 뒤 '광주 출정가' '선봉에 서서' 등의 본격적인 민중가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교훈으로 전후적인 노래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정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의연한 산하' 같은 단조풍의 노래를 탄생시켰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학에

서 조직된 노래패들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민중가요가 활동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그날이 오면' '광야에서' '술아 푸르른 술아' 등이 이 시기에 불려진 대표적인 민중가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이러한 흐름은 '전대협진군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등을 작곡한 윤민석, '철의 노동자' 등을 작곡한 김호철 등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등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민중가요들은 '전대협 통일노래 한마당' 등의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되고 창작되었으며 또 불리워졌다. 한편 민중가요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노래패나 가수들도 활발한 공연활동도 펼쳐왔다. 특히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나 '안치환' '꽃다지' 등의 스타 가수들이 탄생하면서 민중가요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상업가요판에서도 훌륭한 유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줬다. 또 '희망새' '조국과 청춘' '우리나라'와 같은 민중가요의 안정적인 창작부대가 만들어졌고 '천지인' '이스크라' 등의 민중가요 록밴드들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최근에는 힙합 댄스그룹이었던 '젠'이 민중가요계에 뛰어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변화의 기로에서

이제 민중가요는 'Fucking U.S.A'의 등장과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민중가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적어지고 있던 시점에 인터넷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는 민중가요가 특정 시위 현장이나 소규모의 운동권들만이 모여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누구나 듣고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몇몇의 창작자가 아닌 대중 스스로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민중가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이 민중가요의 새로운 흐름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이다.

김종민
대학원연구소 소장



민중가요, 벨소리 서비스

인터넷 또는 핸드폰으로 네이트(www.nate.com)에 접속해서 마이벨 서비스의 록맨밴드로 들어가면 민중가요를 핸드폰 벨소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불나비' '동지' '바위처럼' 등의 잘 알려진 민중가요부터 '한총련진군가'와 같은 투쟁가까지 다양한 민중가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90년대 청소년 김씨' '청계천 87' 등을 만든 작곡가 김성민 씨가 민중가요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한 것이다.

정태훈·박은옥 '20년 골든앨범'

1978년 '시인의 마음'부터 1998년 '정동진·건너간다'까지 20년 동안 출간 우리들 곁에서 역사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주었던 정태훈·박은옥 씨가 지난 3월 '20주년 골든앨범'을 발매하였다. 기존에 발매되던 11장의 앨범 중 대중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33곡을 선정한 이번 앨범은 지난 20여년 간을 정리하고 향후 새로운 음악세계를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방송국 '청춘'

인터넷방송 사이트 '청춘(www.chungchun.net)'은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젊은 인터넷 방송국'을 모토로 2000년 문을 열었다. 과거 매형리사격장 반대시위 모습이나 지난 3일 경희대에서 있었던 '美쳐보자(Oh!No~U.S.A)' 등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방영한다. 또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민중가요의 수가 여는 사이트 보다 다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디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내레이션으로 등장한 슈퍼 히어로의 마지막 주자 스파이더맨. 광범하고 내성적인 고등학생 피터는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 '거미인간'이 되어 초감각과 엄청난 파워를 지니게 된다. 처음 초능력이 생기자 피터는 돈을 벌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만 삼촌의 죽음을 계기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삼촌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그 힘

민중가수와 학생이 만나다

“내 삶을 표현하는 맛, 그게 바로 매력”

'보통' 학생과 노래패 '우리나라'의 만남 ... 개사 통한 공감대 형성



진지하게 토론중인 '우리나라'의 조상희(오른쪽) 씨와 한민정 양

"민중가요? 코골을 쫓아내 줘야. 듣기도 편하고" 소위 '운동권'도 아닌 한민정(정외2) 양이 단지 민중가요의 소박한 매력에 이끌려 동아리 내 민중가요 분과를 만든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투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열성적이지도 않고 알고 있는 민중가요도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더 많은 친구들과 민중가요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이제부터다. 먼저 간단

한 세미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는 민중가요의 정의부터 최근의 변화까지 궁금한 점이 많다. 이에 한민정 양에게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와의 만남을 주선, 민중가요에 흥미가 있는 '보통' 대학생과 '투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민중가요 노래패의 특별한 만남에 동행해 보았다. 합창역 어느 건물 지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무실, 대학교 대동계 공연에 대한 회의의 막 끝난 우리나라의 단원 조상희, 박일규씨와 대표 강성규씨가 한양을 맞았다. 이 날 한 양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주로 민중가요의 정의에 대한 문제였다. 민중가요가 변화하면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의 진보를 노래하는가'로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의 경계를 긋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 양은 "일상의 애환을 노래한 민중가요가 많은가 하면 요즘은 시대상황을 반영한 대중가요도 많다"고 운을 폈다. 이에 조 씨는 "민중가요와 대중가요를 구별짓는 가장 큰 기준은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중가요는 노

래에서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진보를 추구하고 실천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한 양의 질문에 강 씨는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삶과 밀착된 음악을 하려는 자세가 곧 대중화 노력"이라며 오히려 절실한 것은 구조 변화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공중과 방송출연이나 음반 판매를 제약하는 잘못된 구조가 대중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민중가요의 변화에 대한 대화는 폭넓어진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시도가 있었다. "많은 이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민중가요의 주제로 손색이 없다"는 박씨의 말에 한 양이 많은 대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등록금 인상 문제를 꺼낸 것이다. 그리고 한 양은 우리나라가 불렀던 '종이비행기' 노래를 생각해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F-15K를 종이비행기에 빗대 '뺏다 뺏다 비행기~'의 구절을 '안사 안사 비행기' 식의 후렴으로 이용한 노래이다. 즉석에서 우리나라가 불렀던 종이비행기 노래에 연이은 등록금 인상과 변함없는 교육환경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개사를 시도해보았다. 후렴구는 "안내 안내 등록금~"이다

강의실도 화장실도 변함없는데 그동안 낸 우리 돈은 어디다 썼니 그거나 좀 알고서 내자 등록금을 올린 댄다 학교측에서 1백 2백 3백 지푸 내란다 너 같으면 내고싶나 밑빠진 독에 물 부모님 허리 꺾인다

등록금을 올린댄다 학교측에서

박 씨는 개사를 도우며 "비록 개사곡이긴 하지만 대학생, 나아가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직면한 문제이므로 민중가요의 범주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확원 자주화를 위한 시위도 이러한 주제의 노래가사바꾸기 경연대회와 함께 진행하면 학내에서 큰 호응을 얻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장난처럼 개사한 노래와 오랜 고민 끝에 창작한 다른 민중가요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일상과 관련된 일들이 곧 민중가요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한 양의 말은 민중가요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시사한다. 이 날 한 양은 사무실을 나서며 "오늘 느꼈던 민중가요의 매력에 대해 세미나 시간에 꼭 알려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을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데 쓰기로 결심한다. ▲최근 카드빚이 엄청난 실인과 자살 등 사회문제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분기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회사가 이같이 유례 없는 호황을 지속하는 것과 비례해 신용불량자수는 110만 6천명에 달해 신용카드 위험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 이에 정부는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카드사에 대한 단속에 나섰으며, 현금서비스 한도 부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영업방식에 대한 정부 개입은 시장자유를 침해한다"며 현금서비스 한도 재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표라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카드사의 입장은

모랄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가깝다고 지적 받을 만 하다. 카드사 경영자들의 반성 없는 고집이 가계대출 부실화를 심각한 상태까지 몰고 갔으며, 사행성 짙은 경품을 내걸고 현금서비스 이용을 부추겨 금리인상으로 충격이 가중된 가계부채에 계속 짐을 지워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영웅 스파이더맨이

된 피터. 이에 반해 '그린 고블린'은 도덕성을 상실하고 세상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악의 화신이 된다. 카드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엄청난 희생자들을 낳으며 '큰 이익'을 남겼다. 때문에 그들은 지금부터라도 한국경제의 그린 고블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김원정 학술부장 tellme@dongguk.edu